

밤하늘 수놓는 반딧불이 영암에서 만난다

20~21일 영암 왕인박사유적지 '늦반딧불 달빛축제' 개최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1일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에서 '2025 영암 늦반딧불 달빛축제'를 개최한다.

영암군충북물관과 영암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월출산 자락 아래서 늦여름밤 반딧불이의 생태와 별빛을 함께 즐기는 생태문화 행사.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반딧불이 탐사는 저녁 7시부터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해설사의 안내를 따라 반딧불이 서식지를 걸으며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수천 마리 반딧불이의 환상적 장관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행사장에는 불명준과 별명준이 마련돼 있어 캠핑 의자와 인디언 텐트에 앉아 쉬며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피크닉존에서는 준비해 온 돛자리를 펴고 앉아 영화 감상, 저글링 공연과 마술쇼 관람 등으로 고즈넉한 밤을 즐길 수 있다.

지역 주민이 준비하고 아이들이 즐기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돼 있다.

에어바운스 놀이공간과 장난감버스, 이동식 도서관을 포함한 생태학 박사과 함께 하는 반딧불이 서식지 탐사, 도예 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지역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달카시 구연동화까지 더해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반딧불이는 지역 생태와 문화를 잇는 상징이다. 지역 청년과 주민이 함께 준비한 이번 축제에서 영암의 자연과 사람, 밤빛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2025 순천 청년의 날 축제 & 청년주간 행사 개최

오는 19일~20일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주말의광장과 연계 개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청년의 날'을 기념해 '2025 순천 청년의 날 축제'를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연향동 패션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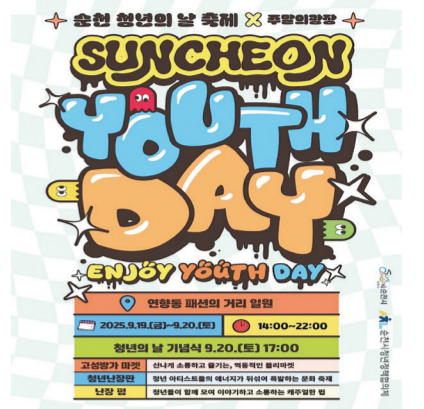
이번 축제는 'Enjoy youth day: 청년, 문화를 즐기고 소통하다'를 주제로, 순천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의 날 기획본과'가 기획단계부터 프로그램 제안 등에 참여해 청년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마련됐다.

청년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고성방가 마켓, 거리노래방·DJ 파티, 청년 공연이 이루어지는 청년 난장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류와 무료 제공 팝콘을 즐길 수 있는 청년 난장판과 청년정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한다. 특히 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 기념식에는 청년들이 기획하고 연출한 연극 공연, 청년정책 유공자 표창, 청년 응원전 등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며, 기념식 시작 전에는 명랑도전게임, 합창과 댄스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청년주간'을 운영하며,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연이어 선보일 계획이다.

▲22일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의 정책제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을 개최하며 ▲23일 오후 3시부터 청년센터에서 치유와 스트레스 해소를 주제로 '청년 healing day in 청년센터'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 ▲24일 오후 7시 30분에 청춘창고에서 청년들의 실패와



순천/정성인 기자

구례군,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구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전남 구례군은 16일 실내체육관에서 구례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경옥) 주관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구례'라는 슬로건으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례군수, 군의장, 도의

원 및 군의원을 비롯해 여성단체회원, 각 읍·면 이장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별 입장식, 기념식,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및 화합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구례"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여성단체별 화려한 퍼포먼스 입장식,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및 기념사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축하공연과 화합한마당, 그리고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 '음지락 짬지락' 및 자활센터의 생산품 전시,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최경옥 구례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 그

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구례군민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군민 모두가 성별의 차이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함평군,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2025년 하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에 힘을 쏟는다. 함평군은 17일 "하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이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참여자를 모집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이유신 차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 재해처벌법과 분야별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을 안내하며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무안군, 제11회 무안향토갯벌축제 맞아 물가안정 캠페인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무안향토갯벌랜드에서 열리는 제11회 무안향토갯벌축제 기간 지역 상권과 관광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소비축진 캠페인을 병행 추진했다.

이번 축제는 '세상에 없던 놀이터, 갯벌에 그리다!'라는 주제로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축제의 즐거움과 더불어 합리적인 소비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상인들의 ▲가격표시제 준수 ▲정찰제 운영 ▲진절 서비스 확대 등을 독려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함께 무안사랑상품권 활용 촉진을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 제공



화순군, AI 디지털 교재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 시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AI 디지털 교재'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20일 사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9월 11일 화순초등학교와 동북초등학교에서 '플레이스비' 배우는 쉽고 간편한 도로명주소'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 '플레이스비'를 활용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플레이스비'는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가상 세계에서 직접 도시를 건설하며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해 배우는 초등학생 맞춤 교육용 메타버스 프로그램이다.

화순/김종환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